2026-11-11

Economy Brief

10월 미국 CPI: 12월 추가 금리인상 이후에는 물음표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10월 소비자물가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기정 사실화시켜 준 동시에 빅 스텝(50bp) 논란을 촉발시킴

12월 추가 금리인상 이후 미 연준이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

유가 하락과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기준으로 10월 혹은 11월를 정점으로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기대

식지 않은 물가, 12월 금리인상 불가피

전년동월 기준 상승률이 발표되지 않은 반쪽자리 소비자물가 지표였지만 10월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기정 사실화시켜 준 동시에 빅 스텝(50bp) 논란을 촉발시켰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전월비 0.3%)를 상회하는 0.4%, 코어 소비자물가도 시장 예상치를 0.1%p 상회하는 0.3%를 기록했다.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폭(전월비 기준)은 9월 대비로는 축소되었지만 코어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9월과 동일했다. 문제는 에너지지수 뿐만 아니라 주요 품목이 모두 상승했는데 이는 비용상승(=공급측면) 및 수요견인(수요측면) 물가압력이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서비스부분의 물가압력이다. 에너지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상승폭은 10월 전월비 0.3%했다. 8월 0.3%, 9월 0.4%에 이어 여전히 높은 상승폭을 유지 중이다. 미국 노동부 역시 주거비지수가 10월에 0.3% 상승해 전품목 월간 상승분의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물가 상승압력은 기대인플레이션도 자극 중이다. 뉴욕 연준이 발표하는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10월 3.91%로 시장예상치(3.79%)는 물론 9월 수치(3.9%)보다도 소폭 상승했다. 고유가와 더불어 견조한 미국 성장세가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10월 FOMC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 추이를 관망했던 미 연준이 12월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되었고 50bp, 즉 빅스텝 가능성마저 열어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2월 금리인상 이후 금리 동결 전망

중요한 것은 12월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그 이후의 행보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미 연준이 12월 금리인상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다행히 최근 이란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면서 유가가 급락한 영향이 11월 소비자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서비스물가 역시 임금상승률 둔화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둔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급망 불안 및 투자를 중심으로 한 강한 미국 성장 사이클이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어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기 어렵지만 전년동월 기준으로 10월 혹은 11월를 정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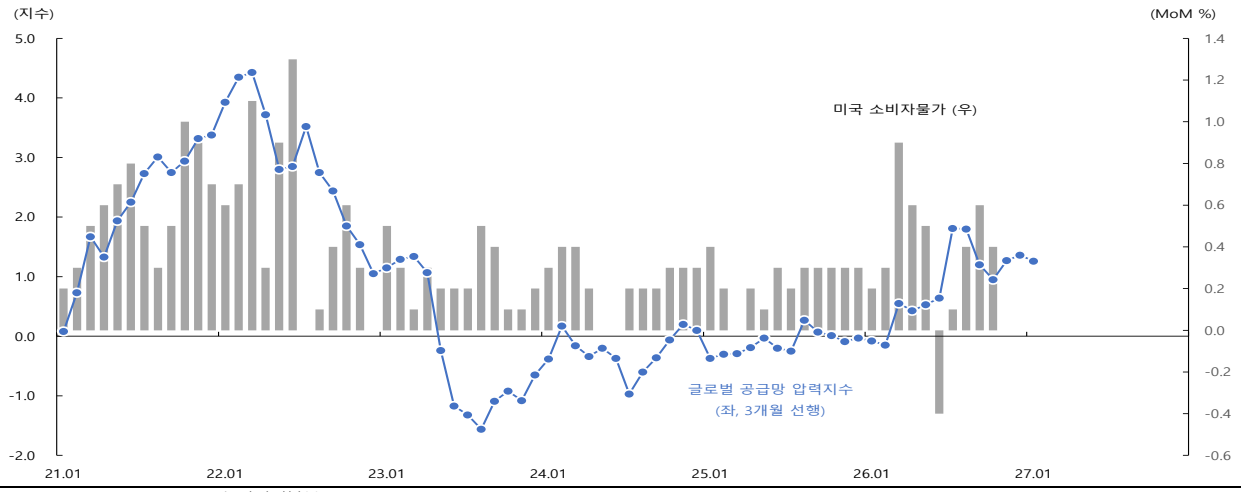
미 연준내에서도 12월 이후 추가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10월 소비자물가보다 11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1.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대비 0.4% 상승. 고유가 여파 등으로 8월부터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Seasonally adjusted changes from preceding month							Un-adjusted 12-mos. ended Oct. 2026
	Apr. 2026	May 2026	Jun. 2026	Jul. 2026	Aug. 2026	Sep. 2026	Oct. 2026	
All items	0.6	0.5	-0.4	0.1	0.4	0.6	0.4	–
Food	0.5	0.2	0.2	0.1	0.1	0.0	0.5	–
Food at home	0.7	0.1	0.2	-0.1	0.0	-0.1	0.4	–
Food away from home[1]	0.2	0.3	0.2	0.3	0.3	0.2	0.5	–
Energy	3.8	3.9	-5.7	-1.5	2.1	5.2	0.7	–
Energy commodities	5.6	6.7	-9.5	-2.9	4.2	9.3	0.8	–
Gasoline (all types)	5.4	7.0	-9.7	-2.9	3.9	9.1	1.0	37.4
Fuel oil	5.8	3.8	-9.2	-1.7	10.1	15.3	2.0	–
Energy services	1.6	0.4	-0.7	0.3	-0.4	0.1	0.6	–
Electricity	2.1	0.6	-1.0	0.1	-0.2	0.2	0.9	–
Utility (piped) gas service	-0.1	-0.5	0.5	0.7	-1.1	-0.3	-0.8	–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0.4	0.2	0.0	0.2	0.3	0.3	0.3	–
Commodities less food and energy commodities	0.0	-0.1	-0.1	0.2	0.1	0.3	0.2	–
New vehicles	-0.2	-0.3	0.0	0.1	0.3	0.2	0.2	0.7
Used cars and trucks	0.0	0.1	-0.2	0.4	0.4	0.7	-1.2	-3.3
Apparel	0.6	0.3	-0.6	0.1	0.0	0.3	0.1	–
Medical care commodities[1]	-0.4	-0.7	-0.2	-0.6	-0.2	-0.7	0.5	–
Services less energy services	0.5	0.3	0.0	0.2	0.3	0.4	0.3	–
Shelter	0.6	0.3	0.1	0.1	0.3	0.4	0.3	–
Transportation services	0.3	-0.6	-0.3	0.3	0.5	0.6	0.8	–
Medical care services	0.0	0.5	-0.1	0.6	-0.2	0.3	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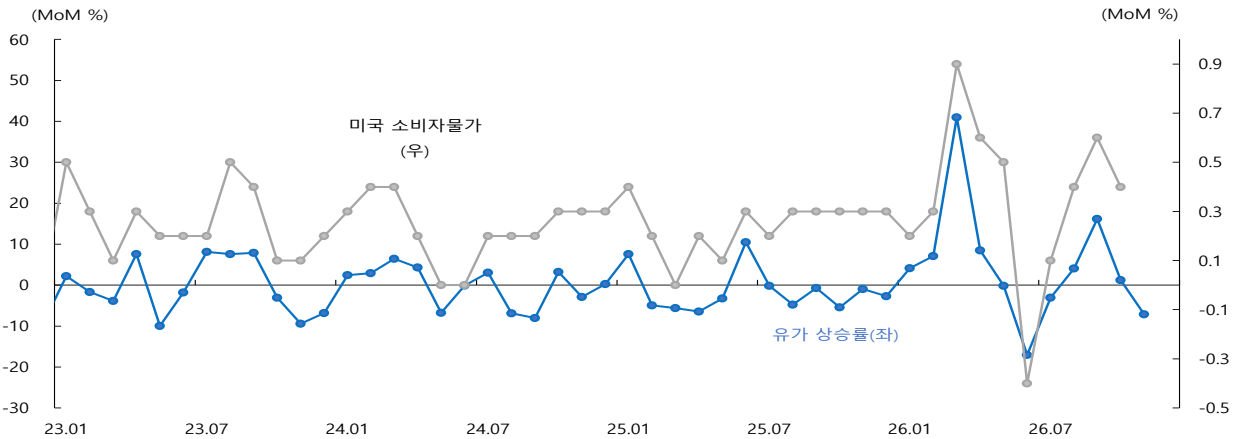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에너지를 포함한 공급망 불안도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하락으로 둔화될 것으로 기대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우려는 있지만 서비스 물가압력이 크게 높아진 상황은 아님(참고로 서비스물가와 임대료제외 서비스물가 전년동월 수치는 9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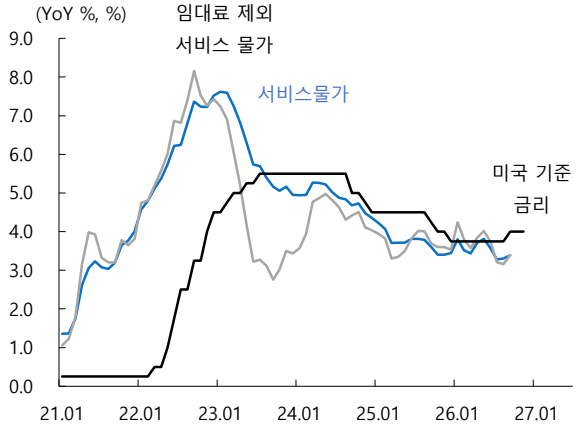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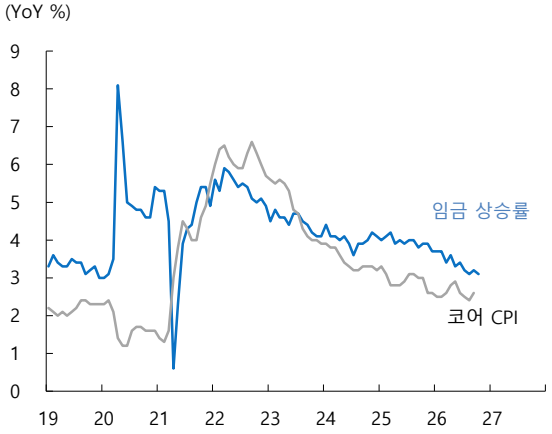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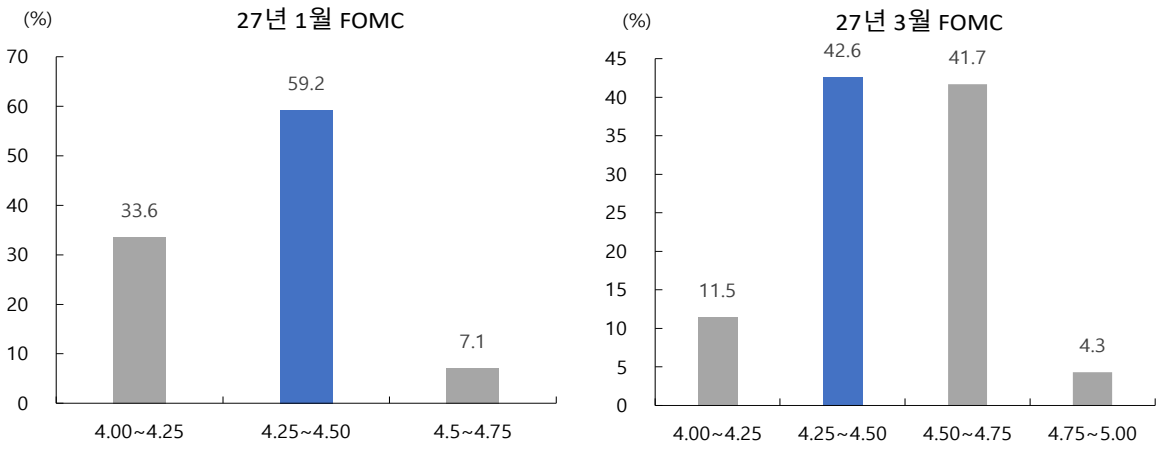


그림5. 임금 상승률 둔화가 서비스물가 등 코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임(코어 소비자물가 전년동월 수치는 9월까지임)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27년 1월과 3월 FOMC 금리인상 확률: 12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이후 금리전망에 대해서는 동결과 추가 금리인상 팽팽한 상황



자료: CME,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